주기도문 전하는 교훈

시 23:6, 시 23:3(후), 사 25:4(전)

Psalm 23:6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Psalm 23:3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Isaiah 25:4 For you have been a refuge for the poor, a refuge for the needy in their distress, a shelter from the storm and a shade from the heat. When the breath of the ruthless is like a storm against a wall,

이번주 소주제 말씀

기독할 :

"Which we have heard and known, and our fathers have told us. We will not hide them from their children, showing to the generation to come the praises of the LORD, and his strength, and his wonderful works that he hath done. 시 – Psalm 78:4

"기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니 우리가 이를 그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행사와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후대에 전하리라 시 78:4

Heaven's plan of salvation is broad enough to embrace the whole world. God longs to breathe into poorer human beings the breath of life. And he will not permit any soul to be disappointed who is sincere in his longing for righteousness. Christ is the source of all true prosperity. Whatever is needed for the upbuilding of the spiritual temple, God will supply. Nothing contributes to the most discouraging, yea to faith for some poorer higher than themselves, than to see others who have been favored with opportunities and means which God will reveal himself to them and will place them in touch with providence and with God

"To him that smote Egypt in their first-born,' 'and brought out Israel from among them,' 'with a strong hand, and with a stretched out arm;' 'to him which divided the Red Sea into parts,' 'and made Israel to pass through the midst of it,' 'but overthrew Pharaoh and his host in the Red Sea;' 'to him which led his people through the wilderness;' 'to him which smote great kings,' 'and slew famous kings,' 'Sihon king of the Amorites,' 'and Og king of Bashan,' 'and gave their land for an heritage,' 'even an heritage unto Israel his servant,'—to him, the Mighty Leader of the hosts of Israel, the returned exiles now rendered praise as the One whose mercy endureth forever. RH April 11, 1907, par. 10

"'그들의 장자 애굽을 치시고' '강한 손과 편 팔로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신 이에게'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치신 이에게'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에게'; ' '큰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을 죽이시고'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시고'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산까지 주셨으니' - 이스라엘 군대의 전능하신 지도자, 그에게 돌아온 유배인들은 이제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는 자로 찬양을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RH 4월 11일, 1907, par. 10

"And this same Mighty Leader is the One who hath 'remembered us in our low estate,' 'and hath redeemed us from our enemies.' O, let us ever "give thanks unto the God of heaven: for his mercy endureth forever!" RH April 11, 1907, par. 11

"이 전능하신 지도자는 '우리의 낮은 지위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오, 우리가 항상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RH 1907년 4월 11일, 파. 11

"In God's covenant with His people in ancient times, directions were given for the faithful recognition of the gracious and marvelous works which He had done for them. God delivered His people Israel from bondage in Egypt. He brought them into their own land and gave them goodly heritage and sure dwelling places. And He asked of them a recognition of His marvelous works. The first fruits of the earth were to be consecrated to God and given back to Him as an offering of gratitude, an acknowledgement of His goodness to them. For they said: 'When we cried unto the Lord God of our fathers, the Lord heard our voice, and looked on our affliction, and our labor, and our oppression: And the Lord brought us forth out of Egypt with a mighty hand, and with an outstretched arm, and with terribleness, and with signs, and with wonders: and He hath brought us into this place, and hath given us this land, even a land that floweth with milk and honey. And now, behold, I have brought the firstfruits of the land, which Thou, O Lord, hast given me.'" [Deuteronomy 26:7-10.] 22LtMs, Ms 67, 1907, par. 1

"고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는 그분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은혜롭고 놀라운 일들을 신실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땅으로 인도하여 좋은 유산과 확실한 거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감사의 제물, 즉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수고와 억압을 돌아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엄위와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보라 주여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가져왔나이다'" [신명기 26:7-10] 22LtMs, Ms 67, 1907, par. 1

3월 8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the Lord thy God hath chosen thee to be a special people unto Himself, above all people that are upon the face of the earth." PK 18.3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 앞에 세워지고 그들의 번영의 조건이 분명해졌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민족보다 너를 택하여 자기에게 속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PK 18.3

"'Thou hast avouched the Lord this day to be thy God, and to walk in His ways, and to keep His statutes, and His commandments, and His judgments, and to hearken unto His voice: and the Lord hath avouched thee this day to be His peculiar people, as He hath promised thee, and that thou shouldest keep all His commandments; and to make thee high above all nations which He hath made, in praise, and in name, and in honor; and that thou mayest be an holy people unto the Lord thy God, as He hath spoken.' Deuteronomy 7:6; 26:17-19. PK 18.4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도를 행하며 그의 율례와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네게 약속하신 대로 네가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찬송과 이름과 존귀에 있어서 그가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너를 오늘 맹세하셨느니라. ' 신명기 7:6; 26:17-19. PK 18.4

"The children of Israel were to occupy all the territory which God appointed them. Those nations that rejected the worship and service of the true God were to be dispossessed. But it was God's purpose that by the revelation of His character through Israel men should be drawn unto Him. To all the world the gospel invitation was to be given. Through the teaching of the sacrificial service, Christ was to be uplifted before the nations, and all who would look unto Him should live. All who, like Rahab the Canaanite and Ruth the Moabitess, turned from idolatry to the worship of the true God were to unite themselves with His chosen people. As the numbers of Israel increased, they were to enlarge their borders until their kingdom should embrace the world." PK 19.1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정하신 모든 영토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나라들은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로 사람들이 그분께로 이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의 초대가 주어져야 했습니다. 희생 제사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는 열방 앞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했고,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살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 라합과 모압 여인 룻처럼 우상 숭배에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돌아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연합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은 그들의 왕국이 세계를 포용할 때까지 국경을 넓혀야 했습니다." PK 19.1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3)961-9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